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光州日報

생애의 연인,
엄앵란이 찾아옵니다.
 대표강연회 열광적
 광주지사 062-228-3222

The Kwangju Ilbo

수완지구, 광주 제2신도시 급부상

여의도 1.5배 2만6,465가구 조성... 호남 최대
 교통·녹지환경·편의시설 등 주거여건 '최적'



수완지구가 광주 제2의 신도시로 급부상하는 등 광주시민들의 주거 지도에 일대 변혁이 일고 있다.
 광주·전남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광주 수완지구가 풍부한 녹지여건과 가로환경디자인, 편리한 교통여건, 저렴한 분양가 등을 바탕으로 '광주의 관교' '제2의 신도시' 등으로 불리우며 시민들의 대규모 주거 공간으로 본격 조성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수완지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통해 1만여평 규모의 대단위 소규모가 개발되는 데다 '사통팔달'의 교통망을 통해 지역내 우수 학교 및 병원시설, 문화회관·광주비엔날레 등 문화시설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신도시' 입지의 최적의 장소로 꼽힌다.
 수완지구는 또 지역 최초로 11개 건설업체가 8월 동시분양에 나서는 등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어 환경과 문화,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명품 신도시 건설'에 청신호가 되고 있다.
 7일 한국토지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광주 수완지구가 오는 8월 대주건설·현진·코오롱건설·GS건설 등 11개사의 9천290세대 동시분양(1차분)을 앞두고 통합모델하우스 건립 등 분양 준비작업에 한창이다.
 수완지구는 광주 광산구 수완·신가·장덕·운

남·혹석동 일대에 오는 2008년까지 조성되며 지난 2004년 첫 삽을 뜬 이후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사업비는 총 1조283억원이 투입된다.
 수완지구는 광주·전남 최대규모의 신도시라는 점에서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다. 서울 여의도 면적의 1.5배인 140만평 부지에 단독주택 1천399가구와 공동주택 2만5천666가구 등 모두 2만6천465가구가 들어선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광주지역 전체 32만4천150세대 가운데 7.7%에 해당한다.
 특히 수완 신도시가 완성될 경우 7만9천여명의 인구를 흡수하게 돼 광주의 기존 인구주거지인 상무지구·첨단지구를 능가하는 신중 주거지인 급부상할 전망이다. 2005년 12월 현재 상무지구와 첨단지구의 수용인원은 각각 4만4천727명(1만2천799세대), 7만명(1만9천세대) 수준이다.
 수완지구는 풍부한 녹지를 바탕으로 한 쾌적한 주거환경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지구를 가로지르는 풍영정원을 포함해 택지의 22.7%인 32만여평이 녹지인 데다 인구밀도는 1ha당 172명으로 일산신도시(176명)나 분당신도시(198명)보다 낮다.
 사통팔달의 교통망도 시민들의 주거지 변화

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호남고속도로 산월 IC와 자동차로 5분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인근 무진로를 통한 서구 상무지구 등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이밖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가로환경 디자인이 수완지구 주요 간선도로변에 적용되며 호남권 최초로 구역형집단에너지공급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도시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토지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수완지구는 규모뿐만이 아니고 지구내 녹지 및 각종 시설 등 모든 면에서 기존 주거지의 개념을 한차원 뛰어넘는 미래지향적인 신도시로 조성되고 있다"면서 "오는 8월로 예정된 11개 건설업체의 동시분양을 시작으로 광주의 주거환경을 바꿀 대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희기자 choice@kwangju.co.kr

World Cup D-1 AGAIN 2002

태극전사 '킬른 결의'

"6월 귀국은 없다"

▶관련기사 8·9·16·22·23면

"전술적 측면보다 정신력 회복이 더 중요하다.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6월 귀국은 없다."
 유럽 현지 두 차례 평가전에서 기대 이하의 경기를 벌인 아르보카르트가 독일에 도착한 뒤 베이스캠프에서 '킬른 결의'를 다졌다.
 디 아르보카르트가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은 7일(이하 한국시간) 필른 교외 베르거시-글라드바흐의 슐로스 벤스베르크 호텔에서 여장을 풀

뒤 식사를 마치고 의미심장한 시간을 가졌다.
 홍명보 코치, 정기동 골키퍼 코치와 대표팀 주장 이운재(수원)의 대화였다. 홍 코치와 정 코치는 주장 이운재에게 선수단에 전달할 주문 사항을 강하게 역설했다.
 두 코치의 주문은 이렇다. 노르웨이전과 가나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와 팀이 침체된 분위기에 빠져 있지 만 남은 기간 최대한 빨리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홍 코치는 "우리 선수단은 전술적 측면 외에도 정신력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신감을 빨리 되찾아야 하고 선수단은 더욱 굳게 단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운재는 이에 대해 "훈련이 바로 시작되는데 두 코치의 말을 잘 이해한다. 선수들에게도 이런 말이 잘 전달돼 토고전을 앞두고 자신감과 필승 의지를 더욱 굳게 하도록 해야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아르보카르트는 7일 오후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엘 레버쿠젠 홈구장인 '바이 아레나'에서 담금질에 들어갔다.
 /최재호기자 lion@



'버냉키 쇼크' 주가 연중 최저

코스피 34.78P ↓ ... 1266.84

증시가 '버냉키 쇼크'로 폭락하면서 또다시 '검은 수요일'이 재연됐다.
 7일 코스피지수는 34.78포인트(2.67%) 급락한 1,266.84로 마감,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지던 1,300선이 맥없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 역시 35.80포인트(5.98%) 폭락한 562.91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지수가 1,270선 아래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1월22일 1,244.50 이후 6개월여만에 처음이다.
 미국 연방제도이사회(FRB) 벤 버냉키 의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이 연일 인플레이션 억제에 위한 금리인상을 시사하면서 현종일 휴일로 하루 휴장한 국내 증시는 매우 과민하게 반응하며 투매양상마저 전개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대법관 후보 5명 임명 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7일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 이홍훈 서울

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관련기사 3면>

노 대통령은 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수용할 경우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구해 인사청문회를 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과하면 신임 대법관 후보 5명을 공식 임명하게 된다.
 대법관 후보자 5명은 청문회와 표결 과정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강신욱·이규홍·이강국·손지열·박재운 대법관이 퇴임한 다음날인 다음달 11일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된다. 하지

만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지연될 경우 임명이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제청된 후보자는 사시 14~18기 출신으로, 변화와 안정, 경제과 지역 안배, 판결 경향 등이 감안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회 동의를 이뤄질 경우 여성법관으로 추천된 전수안 법원장은 2004년 8월 임명된 김영란 대법관에 이은 사상 두 번째 여성 대법관으로 기록된다.
 대법원은 병역, 도덕성, 재산문제 등의 검증작업과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판결·논문 등 기초자료도 분석해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선정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본선실기대회
15일(목)로 연기
 논술부문은 예행대회(10일) 풍합과 진행
 ▶장소: 광주해탈리랜드 우치체육관 ▶문의: 220-0541, 222-8111

후원회 장학금 500원 기탁
남부대학교
 http://www.nmbu.ac.kr
 ▶문의: 062-921-4114, 1, 1, 062-921-4201-4
 사제로 봉사하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문의: 061-5031, 1, 061-360-5000

세계스타·세기보청기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채롭게 동인재능 개성의 새기기 첨단보청기 기술의 최첨단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문의: 062-228-0180